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대체 마련 발길이 분주하다. 기업 수장들의 신년사에서든 굳은 결의와 각오가 느껴진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SKT 박정호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맨 왼쪽부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리더”

주요 ICT기업 수장들 신년사

삼성 권오현 부회장 “품질 신뢰 회복에 올인”
LG 조성진 부회장 “AI·로봇 등 신성장동력”
SKT 박정호 사장 “글로벌 ICT 기업과 협업”



올해는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국 불안으로 국내 시장도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울러 앞으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바쁜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골든타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요 ICT 기업 수장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지난해 치른 값비싼 경험을 교훈삼아 올해 완벽한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력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노트7’의 조기단종 사태와 관련한 조치 내 변화를 주문한 것

이다. 권 부회장은 “제품 경쟁력의 기본인 품질은 사소한 문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 개선과 검증 강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새롭게 LG전자의 방향타를 잡은 조성진 부회장은 “어떤 위기에든 흔들림 없는 일등 LG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꾸준한 성과를 내는 가전 부문과 달리 스마트폰 부문에선 계속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조 부회장은 세탁기 등에서의 글로벌 1등 DNA를 다양한 분야에 이식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중점과제로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 ‘품질’과 ‘안전’경영, 이기는 조직문화 내재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해 로봇과 같은 새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진화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력사업이 둔화된 통신 3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 1등을 외쳤지만 그 의미는 각기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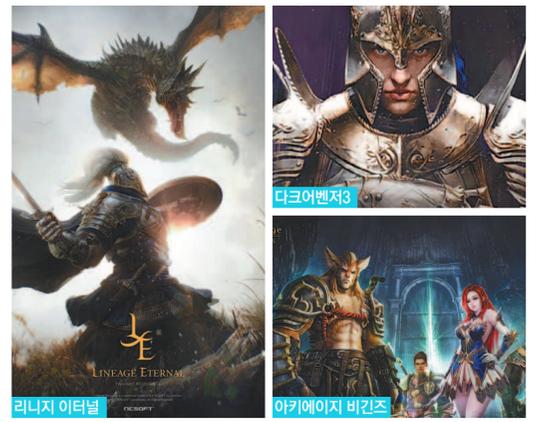
박정호 SK텔레콤 신임 사장은 “1등 리더십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 ICT기업이 되자”는 목표를 내놨다.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미디어·홈, 플랫폼 영역의 ‘판’을 바꾸는 혁신과 성장을 추

구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 “그룹 관계사는 물론, 국내 업계 및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톱 ICT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혁신기술 1등 기업에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1등이나 IPTV 1위 기업이라는 직접적 목표가 아닌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회사,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3년 전 KT는 하나만 더 잘못돼도 미래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이 됐다”며, “변화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미래를 여는 2017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자승자강의 정신으로 세계 일등을 꿈꾸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효율성은 지속 제고하는 한편 IoT와 AI 등 신규 사업에 선반드시 일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통신시장은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며 “내실을 더 단단히 하는 한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한발 앞서 개척해 새로운 성장의 활로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리니지 이터널’ ‘로스트아크’ PC 온라인 대격변 일으킬까



2017년 주목할 만한 신작 게임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올해는 PC온라인 부문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도 그 역할을 할 게임 중 하나다. 리니지 이터널은 국내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 시리즈의 적통을 잇는 후속작. 지난해 말 테스트를 했으며, 올해 추가 테스트도 계획하고 있다. 그 성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PC온라인게임이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 국내 MMORPG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첫 테스트를 했다. 올해는 우선 2차 테스트를 계획 중이며, 그 후 추가 테스트 및 서비스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웹젠의 ‘뮤레전드’는 1분기 경 공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1세대 MMORPG 중 하나인 ‘뮤온라인’의 정식 후속작으로 큰 관심을 모은다. 블루홀의 ‘프로젝트W’도 기대받는 PC온라인게임이다. 베테랑 개발자를 대거 투입해 제작한 MMORPG로 카카오톡이 전라적 자본투자를 해 눈길을 끌었다. 넥슨의 경우 ‘니드포스피드드라이프’와 ‘타이탄 폴’, ‘로블록 이커즈’ 등 다수의 기대 PC온라인게임을 준비 중이다.

모바일도 기대작들이 많다. 먼저 넥슨은 모바일에서도 ‘던전앤파이터: 혼’을 비롯해 ‘엘소드 슬레이’, ‘다크어벤저’ 등 신작을 쏟아낸다. 넷마블 게임즈도 ‘스타워즈:포스아레나’와 ‘펜타스톰’, ‘데스티니6’ 등 신작을 대거 준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를 모바일로 구현한 ‘리니지M’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시삼십삼분도 ‘삼국블레이드’를 필두로 ‘파피야’와 ‘D.C 프로젝트’ 등을 준비 중이다. 게임빌은 ‘아키에이지 비긴즈’와 ‘로열블러드’, 컴투스도 ‘소울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밖에 펠어비스가 제작 중인 ‘검은사막 모바일’ 등도 눈길을 끈다.

김병근 기자

한창 크는 우리아이, 책가방 착용감도 꼼꼼하게!

신학기 아웃도어·스포츠브랜드 키즈백

블랙야크, U자형 어깨 끈으로 무게감 분산
노스페이스, 재귀반사 라벨로 안전성 강화



해가축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17경 1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 ‘우리 손주’, ‘우리 조카’를 위해 부모, 할아버지·할머니, 이모·삼촌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VIP(Very Important Person)의 ‘Person’ 대신 ‘Baby’를 집어넣은 ‘VIB’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어린이 고객이 중요해졌다.

키즈 마케팅이 뜨거워진 것은 유통업체뿐만이 아니다. 아웃도어·스포츠업체에게도 어린이 고객이 VIB이다. 요즘은 새학기를 앞두고 키즈 책가방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책가방 시장은 연 4000억원에 달한다.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는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담은 책가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키워드는 ‘성장’. 아이들의 성장 방해요소를 줄이는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수소재·안전장치… ‘책가방은 과학입니다’

블랙야크에서 전개하는 키즈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키즈는 ‘성장’과 ‘안전’을 키워드로 기능성을 높인 책가방 시리즈 7종을 출시했다. 무게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U자형 어깨 끈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벼운 EVA 소재와 내구성이 좋은 PU 소재를 사용해 어깨 끈으로 쉽게 꺼지지 않고, 책가방의 무게를 적절히 분산시켜 성장기 어린이들이 편하게 가방을 땄 수 있도록 했다.

‘BK플카게이스’와 ‘BK아크스타’ 등 일부 제품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가볍게 만들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쉽게 깨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 가방은 물론 안에 담은 물건도 손상될 염려가 없다.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도 신학기 가방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성장기 아이들의 어깨와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척추 의학협회의 인증을 받은 노스페이스 플렉스베트 어깨 끈을 사용했다. 유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호루라기



신학기를 일찌감치 준비하려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의 책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래도록 등산배낭 등을 제작하며 쌓은 노하우를 책가방에 적용했다. 블랙야크키즈 BK아크스타, 노스페이스 키즈 스퀘어 스쿨백, 힐라의 크로노스 백팩(큰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블랙야크·노스페이스·힐라

를 가방 끈에 장착하고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해 가방 전면 하단에 재귀반사 기능을 갖춘 특수 라벨을 적용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더했다. 대표제품인 ‘노스페이스 키즈 스퀘어 스쿨백’은 가방 상단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탑 로딩 구조로 되어 있어 내용물 파손과 소지품 수납이 편리하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가방이 한 세트도 구성됐다.

스포츠 브랜드 힐라는 힐라 고유의 세련되고 클린한 콘셉트를 살렸다. 전체적으로 날렵한 사각 형태 디자인, 무채색부터 비비드한 포인트 컬러를 적용한 제품 등 다채로운 스타일의 책가방을 선보였다. 서로 다른 소재를 혼용한 원포인트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느낌을 살린 것도 힐라 백팩의 특징이다. ‘크로노스’ 백팩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강조한 스퀘어 프레임 디자인을 적용

하는 동시에 전면 지퍼 부분에 화이트 컬러 트림으로 디테일을 살려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켰다.

르까프의 키즈용 가방 시리즈는 동일한 디자인의 백팩과 신발주머니로 구성된 세트연출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전면과 측면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세트도 구성된 신발주머니는 어깨 끈을 활용해 크로스백으로도 착용할 수 있다. 전면 지퍼 포켓이 부착돼 모바일 기기 등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다.

케이스위스의 ‘어반 백팩’은 라운드 스타일을 기본으로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된 느낌을 준다. 스쿨 백팩은 물론 직장인의 노트북 가방, 트래블 가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361@gmail.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블랙야크 임직원 300여명, 구룡산·태백산 정상서 시무식



블랙야크, 동진레저, 아웃도어, 블랙야크강태산나눔재단 임직원 300여명이 새해 첫 날 구룡산과 태백산 정상에서 이색 시무식을 개최했다. 블랙야크는 매년 임직원들의 신년 산행 및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가 벌써 13년째이다. 올해는 서울 구룡산과 강원도 태백산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른 새벽부터 산행에 참가한 임직원 및 가족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정상에 올랐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며 소망을 빌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상에서는 시산제도 열렸다. 블랙야크 강태산 회장은 산행과 함께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블랙야크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아웃도어 산업의 미래 백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브랜드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아크처럼 우직하게 걸어갈 것”이라 말했다.

양형모 기자

‘주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운티아, 새해 응원 이벤트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가 새해를 맞아 모뎀 주원을 내세운 특별한 응원 이벤트를 개최한다.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 자신을 향한 격려의 말 등을 마운티아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주원이 직접 응원의 영상을 담아 메시지로 전달한다. 27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자는 2월3일 발표한다. SNS이벤트도 있다. 5일까지 마운티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고 URL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피자세트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